

2012. 7. 제44호 (12-03)

청소년 학업중단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전 경 숙 (본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목 차

1.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나?
2. 무엇이 문제인가?
3. 현행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정책의 한계
4. 향후 정책의 방향 및 대안 모색

본 「이슈브리프」는 가족여성과 관련된 시의성 높은 이슈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으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부정기적으로 발간·배포됩니다.

요 약

○ 경기도 청소년 학업중단 현황

- 2011년 도내 학업중단 청소년은 16,138명으로 전체 초·중·고등학교 재적생의 1.0%가 학업중단자이며, 학교급에 따른 학업중단 비율은 초등학교 0.4%, 중학교 1.0%, 일반고 1.9%, 전문고 5.9%로 전문고의 학업중단 비율이 월등히 높음.
- 성별 학업중단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 1.0%, 여자 0.8%로 남자청소년의 학업중단 비율이 여자청소년보다 0.2%p정도 높음.
- 학업중단의 원인은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부적응이 50.5%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특히 전문계 고등학생은 학교부적응(57.0%) 다음으로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 가사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 비율도 25.0%로 높음.

○ 최근 동향 및 현안문제

-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대안교육시설 및 대안학교 운영은 미흡한 실정임.
- 부모의 실직과 가정빈곤, 그로인한 가족해체 요인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경우 복교보다는 직업훈련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고 있음.
- 적절한 진로를 찾지 못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 자살 충동, 가출, 불건전한 노동환경에의 진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위기상황은 이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임.

○ 향후 정책의 방향 및 대안

- 사후대책보다 예방에 중점 :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내실화하고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며,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및 대안학교 운영을 확대함.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 복교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하여 도립 기술학교에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인턴십과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내 기업과 연계하며, 여자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신설을 통해 불건전한 노동현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
-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교통비, 식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도내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다각화하여 시간 연장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1.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나?

가. 전국 학업중단 현황

“2011년 전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60,283명, 전체 재적생의 1.0%가 학업중단, 실업고는 5.8%로 월등히 높아”

- 2011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60,283명으로 전체 재적생 6,322,983명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학교급에 따른 학업중단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0.3%, 중학교 0.9%, 일반고 1.7%, 전문고 5.8%로 고등학교 학업중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전문고의 경우는 월등히 높음.
-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06년~2008년까지 57,148명(2006년)→ 70,796명(2007년) → 73,494명(2008명)으로 증가하고 학업중단 비율도 0.7% → 0.9% → 1.0%로 증가함. 2009년부터 학업중단 학생 수는 71,769명(2009년) → 61,910명(2010년) → 60,283명(2011년)으로 감소하는 경향이거나 학업중단 비율은 1.0% → 0.9% → 1.0%로 나타나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2010년부터 전체 재적생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표 1〉 전국 초·중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전문고	계
2006	재적생	3,925,043	2,075,311	1,281,508	494,349	7,776,211
	중단자	18,403	15,669	10,166	12,910	57,148
	비율(%)	0.5	0.8	0.8	2.6	0.7
2007	재적생	3,829,998	2,063,159	1,347,363	494,011	7,734,531
	중단자	23,898	18,968	12,616	15,314	70,796
	비율(%)	0.6	0.9	0.9	3.1	0.9
2008	재적생	3,672,207	2,038,611	1,419,486	487,492	7,617,796
	중단자	20,450	20,101	15,477	17,466	73,494
	비율(%)	0.6	1.0	1.1	3.6	1.0
2009	재적생	3,474,395	2,006,972	1,484,966	480,826	7,447,159
	중단자	17,644	19,675	16,145	18,305	71,769
	비율(%)	0.5	1.0	1.1	3.8	1.0
2010	재적생	3,299,094	1,974,798	1,496,227	466,129	7,236,248
	중단자	11,634	15,736	17,419	17,121	61,910
	비율(%)	0.4	0.8	1.2	3.7	0.9
2011	재적생	3,132,477	1,910,572	985,266	294,668	6,322,983
	중단자	10,181	16,320	16,583	17,199	60,283
	비율(%)	0.3	0.9	1.7	5.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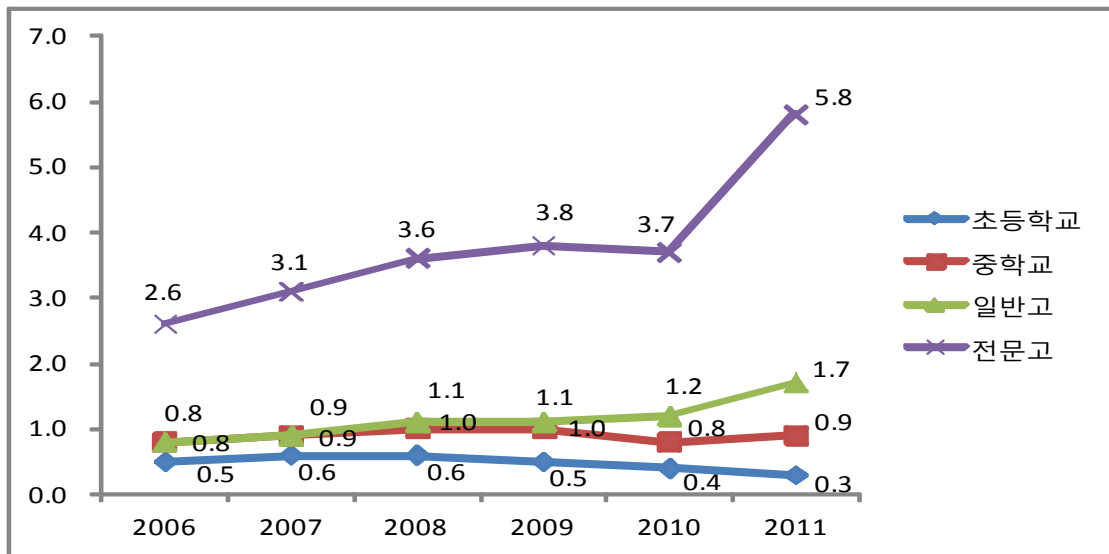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2006~2011.

“최근 5년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 비율은 완만하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고등학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2010년 대비 2011년 전문고 학업중단 비율은 3.7%에서 5.8%로 현저히 증가”

- 학교급에 따른 최근 5년간의 학업중단을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2010년 대비 2011년 증가율은 일반고의 경우 1.2% → 1.7%로, 전문고의 경우 3.7 → 5.8%로 급격히 증가함.

〈그림 1〉 전국 초·중등학교 학업중단을 추이

(단위 : %)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은 주로 1학년(58.7%)에 이루어지며, 학교부적응(44.2%)과 가사(24.2%)로 인한 사유가 68.4%를 차지”

- 고등학교 학업중단 비율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2010년 전체 고교 학업중단자 34,540명 가운데 58.7%가 1학년에 중단하였고, 32.7%는 2학년, 8.6%는 3학년에 한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학업중단은 주로 1학년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표 2〉 참조).
- 학업중단 사유는 ‘학교부적응’ 이 44.2%로 가장 높고, 가정불화와 경제사정 등 ‘가사’ 와 대안교육, 검정고시 준비, 해외어학연수 등 ‘기타’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이 동일하게 24.2%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전국 학년별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2010)

(단위 : 명, %)

구분	질병	가사	품행	학교부적응	기타	계	
전체	2,067	8,363	475	15,268	8,367	34,540(100.0)	
	6.0	24.2	1.4	44.2	24.2	100.0	
학년	1	982	4,961	228	9,314	4,788	20,273(58.7)
		4.8	24.5	1.1	45.9	23.6	100.0
	2	783	2,655	166	4,780	2,914	11,298(32.7)
		6.9	23.5	1.5	42.3	25.8	100.0
	3	302	747	81	1174	665	2,969(8.6)
		10.2	25.5	2.7	39.5	22.4	10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2011.

나. 경기도 학업중단 현황

1) 최근 5년간 추이

“경기도 초·중등학교 학업중단 비율은 2006년 0.8%, 2007년 1.1%, 2008년 1.2%로 증가하다가, 2009년 1.1%, 2010년 1.0%, 2011년 1.0%로 감소세. 전국 평균 대비 경기도 학업중단 비율은 매년 0.1~0.2%p 더 높아”

○ 경기도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06년~2008년까지 15,065명(2006년)→ 20,338명(2007년)→ 21,272명(2008년)으로 증가하고 학업중단 비율도 0.8% → 1.1% → 1.2%로 증가함. 2009년부터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430명(2009년) → 17,059명(2010년) → 16,138명(2011년)으로 감소하는 경향이고 학업중단 비율도 1.1% → 1.0% → 1.0%로 감소하는 추세임(〈표 3〉 참조).

○ 전국 대비 경기도 학업중단 비율은 매년 0.1~0.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1년 도내 학업중단 청소년은 16,138명, 전체 재적생의 1.0%가 학업중단, 실업고는 5.9%로 월등히 높아”

○ 2011년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16,138명으로 전체 재적생 1,590,456명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학교급에 따른 학업중단 비율은 초등학교 0.4%, 중학교 1.0%, 일반고 1.9%, 전문고 5.9%로 고등학교 학업중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전문고의 경우는 월등히 높음(〈표 3〉 참조).

〈표 3〉 경기도 초·중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전문고	계 (경기도)	계 (전국)
2006	재적생	966,347	487,357	272,722	112,739	1,839,165	7,776,211
	중단자	6,182	4,057	2,232	2,594	15,065	57,148
	비율	0.6	0.8	0.8	2.3	0.8	0.7
2007	재적생	951,908	489,548	296,918	114,814	1,853,188	7,734,531
	중단자	8,442	5,351	3,086	3,459	20,338	70,796
	비율	0.9	1.1	1.0	3.0	1.1	0.9
2008	재적생	920,586	488,203	320,890	115,745	1,845,424	7,617,796
	중단자	7,327	6,045	3,938	3,962	21,272	73,494
	비율	0.8	1.2	1.2	3.4	1.2	1.0
2009	재적생	880,141	484,656	341,214	115,683	1,821,694	7,447,159
	중단자	6,116	5,781	4,372	4,161	20,430	71,769
	비율	0.7	1.2	1.3	3.6	1.1	1.0
2010	재적생	848,135	482,170	350,929	110,532	1,791,766	7,236,248
	중단자	3,798	4,373	4,876	4,012	17,059	61,910
	비율	0.4	0.9	1.4	3.6	1.0	0.9
2011	재적생	814,927	472,878	233,424	69,227	1,590,456	6,322,983
	중단자	3,172	4,562	4,329	4,075	16,138	60,283
	비율	0.4	1.0	1.9	5.9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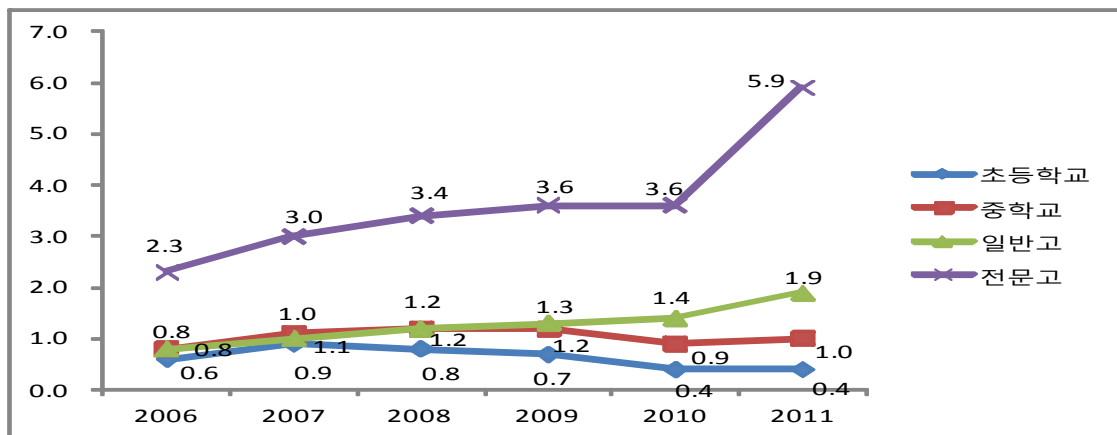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2006~2011.

“최근 5년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2010년 대비 2011년 전문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3.6%에서 5.9%로 현저히 증가”

- 학교급에 따른 최근 5년간의 학업중단율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2010년 대비 2011년 증가율은 일반고의 경우 1.4% → 1.9%로, 전문고의 경우 3.6 → 5.9%로 급격히 증가함.

〈그림 2〉 경기도 초·중등학교 학업중단율 추이

(단위 : %)



2) 성별 학업중단 현황

“경기도 전체 학업중단을 1.0%중 남자 1.0%, 여자 0.8%로 남자청소년의 학업중단 비율이 0.2%p 정도 높고, 일반고와 실업고로 갈수록 남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 “

- 성별 학업중단 비율을 살펴보면, 도내 전체 학업중단을 1.0% 가운데 남자는 1.0%, 여자는 0.8%로 남자청소년의 학업중단 비율이 0.2%p정도 높음.
- 성별 격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없거나 매우 미미하였지만, 일반고에서는 1.6% : 1.1%, 전문고에서는 4.1% : 3.0%로 남녀 격차가 각각 0.5%p와 1.1%p로 크게 벌어짐.

〈표 4〉 경기도 성별 학업중단 현황(2010)

(단위 :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전문고	계
재적생	848,135	482,170	350,929	110,532	1,791,766
남	440,793	251,186	182,084	59,665	933,728
여	407,342	230,984	168,845	50,867	858,038
중단자	3,798	4,373	4,876	4,012	17,059
남	2,030	2,352	2,942	2,474	9,798
여	1,768	2,021	1,934	1,538	7,261
중단율	0.4	0.9	1.4	3.6	1.0
남	0.5	0.9	1.6	4.1	1.0
여	0.4	0.9	1.1	3.0	0.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2011.

3) 원인별 학업중단 현황

“고등학교 학업중단 원인은 학교부적응이 50.5%로 과반수를 차지.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부적응(57.0%) 다음으로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 ‘가사’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 비율도 25.0%로 높아”

-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는 학습부진, 교칙위반, 학교폭력 등 ‘학교부적응’ 으로 인한 학업중단 비율이 50.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대안교육, 검정고시 준비, 해외유학 등 ‘기타’ 23.7%, 가정불화, 가정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 ‘가사’ 19.0% 순으로 나타남.
-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부적응’ (57.0%)과 ‘가사’ (25.0%)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 비율이 82.0%로 전체 고등학교 평균 69.5%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표 5〉 참조).

〈표 5〉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중단 원인별 현황(2010)

(단위 : 명, %)

구분	학업중단 사유					
	소 계	질 병	가 사	품 행	학교부적응	기 타
계	8,888	500	686	104	4,490	2,108
비율	(100.0)	(5.6)	(19.0)	(1.2)	(50.5)	(23.7)
일반계	4,876(100.0)	376(7.7)	685(14.0)	72(1.5)	2,203(45.2)	1,540(31.6)
전문계	4,012(100.0)	124(3.1)	1,001(25.0)	32(0.8)	2,287(57.0)	568(14.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2006~2011.

2. 무엇이 문제인가?

가. 청소년 학업중단의 최근 동향

1)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비율의 증가

- 과거에는 대부분 비행청소년으로 분류되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과도한 학력경쟁과 입시 스트레스, 동료 간의 관계 부적응 및 따돌림, 다양한 문제행동에의 유입 등 복합적인 학교부적응 문제로 인한 학업중단이 주류를 이루는 양상임.
- 학교부적응은 고교생의 학업중단 원인 1순위로 실업계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생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학생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음.

2)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해체 요인의 증가

- 고교생의 경우 학교부적응이나 범죄경력 등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정빈곤과 그로 인한 가족해체도 한 몫을 하고 있음. 경제위기로 인한 부모의 실직 및 이혼 등 가정불화에 기인한 가정해체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중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차 커지고 있음.
- 이들은 특히 사회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일반 학생에 비해 매우 커서 대책 마련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됨.

3) 낮은 사회복귀율

- 학교부적응과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과 달리, 이들의 사회복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학교를 떠난 청소년 가운데, 30% 정도만 검정고시 등 대체학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위도식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가사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임. 일단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학교로 돌아오는 비율은 14% 정도로 낮고, 복교를 한 학생의 재탈락 비율은 20~30% 정도로 높음.
- 그러므로 최초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업중단 위기상황을 발견하여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나. 현안 문제

1) 대안교육의 기회 부족

- 다양한 요인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한정되어 있음. 전국적으로 한 해 3만 여명, 경기도에서만 9천명 정도의 고교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지만, 마땅히 진로를 못 찾고 있는 상황임.
-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전국의 고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2010년 5월 현재 23개교뿐이고, 수용학생도 2,500명 정도에 그침. 2000년 이전 10개교에 비하면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함.
- 경기도의 경우 대명고, 두레자연고, 이우고, 한겨레고 등 4개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음. 해마다 발생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중 10%미만의 소수만 각종 대안학교로 옮길 뿐, 나머지 90% 이상은 별다른 진로를 찾지 못하고 사회적응 과정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 문제는 대안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특성화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임.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의 경우 대다수가 기숙학교로 일반학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업료를 받고 있음.
- 정부와 지자체가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일선 학교에서도 다양한 복학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2)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사업 미흡

- 학업을 계속하기 보다는 직업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더욱 취약한 실정임.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두드림존 사업에 자립지원 서비스 단계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직업교육, 직장체험, 사회진출연계 등이 1주일간의 과정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현실임.
- 경기도의 경우 도립 기술학교에서 1년 과정 혹은 3~6개월의 단기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거쳐 취업으로 연결하고 있지만, 일반인과 비교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기회는 매우 제한적으로, 연간 배출되는 천 명이상의 교육생 가운데 학업중단 청소년은 30명 정도에 불과함.
- 개설되는 교육과정도 자동차 정비학과, 특수용접학과, 전기에너지학과, 첨단기계학과 등 청소년들의 욕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그나마 여자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은 전무한 실정임.
-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연계의 기회를 확대하며,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특히 여자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복합적 문제행동에의 유입

- 학업중단 자체만으로도 개인적으로 극복해 가야하는 커다란 위기상황인데, 보통의 경우 또 다른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학습부진 및 교사·교우 관계에 따른 학교부적응과 가정의 실직 및 가정의 해체 등에 따른 가사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적절한 진로를 찾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인터넷 중독, 자살 충동, 가출, 불건전한 노동환경에의 진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위기상황은 이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임.
-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청소년 학업중단이라는 사회현상은 이른바 “학업중단·가출·아르바이트” 라는 일종의 유행과 같은 “하위문화” 를 만들어 내고 있는 특징적 현상이 발견됨. 자발적으로 혹은 불가피하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일에 대한 욕구 및 필요는 매우 높으며, 특히 가출이라는 문제 상황에 유입될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짐.
- 해마다 수만 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의 경우 개인 혹은 가정·환경적인 문제 상황으로 인해 불건전한 노동 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임.

3. 현행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정책의 한계

가. 학교차원의 예방대책 미약

- 정부 정책이 주로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 취업, 복교 등에 중심을 둔 사후대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예방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최근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Wee-Project를 추진함에 따라 학교 내에 대안교실(Wee-Class) 및 대안교육센터(Wee-Center)가 운영되는 등 예방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과 정확한 숫자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수치에 비하면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경기도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도¹⁾의 시행을 통해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의 18% 정도가 철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예방효과가 감지되고 있으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를 확대해야 하고, 외부 전문상담 기관과 긴밀한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학생까지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나. 대안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부족

- 일정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여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관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대상자는 학교폭력 가해자, 교칙위반자, 보호관찰 청소년 등 다양하며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기간과 시수를 달리하고, 참여한 프로그램을 수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업중단 예방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여건이 매우 열악하며, 이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양적인 확대와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임.

1)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고등학생 및 학부모로 하여금 Wee센터(클레스)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외부의 전문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임. 질병, 유학, 평생교육시설 및 방송통신고 전학을 이유로 자퇴하려는 학생은 제외함.

다. 자립 및 취업 지원정책 미흡

- 정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복교정책에 중점을 두어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학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대적인 복교 조치를 취하였음.
- 그러나 복교 후 재 학업중단율이 3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복교정책이 과연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최상의 방법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개인의 상황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자립·취업지원 정책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는 더 나은 수단이 될 수 있음.

라.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미흡

- 학업중단 청소년의 예방 및 보호 관련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하여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로 연결되는 추진체계를 갖고 있음.
- 정부 주무부처 간의 실질적인 연계·협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무기관 간의 특성들이 활용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따라서 학교, 대안교육 시설, 상담기관, 보호시설, 직업훈련기관 등 각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개입활동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마. 정부차원의 종합관리 시스템 부재

- 청소년들이 일단 학교를 떠나게 되면,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사회체제와의 연결망이 단절되는 것임.
-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취약계층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만하게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후관리를 위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4. 향후 정책의 방향 및 대안 모색

가. 사후대책보다 예방에 중점

-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란 상당히 어렵고 범죄의 유혹이나 기타 문제행동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움. 복교 후 재탈락율은 상당히 높으며, 이 경우 사회복귀는 더욱 힘들어짐.
- 그러므로 학교를 그만 두기 전에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일차적으로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강화함. 학교상담의 전문화와 대안 교육 기회의 확대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1) 학업중단 숙려제도의 내실화 및 확대

-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이어간다면, 미래사회에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일선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함.
- 담임교사와 Wee 클래스(대안교실) 및 Wee 센터(대안교육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전문상담교사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학교적응과 자퇴 숙려를 지원하고, 집단 프로그램 운영 및 집중적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함.
- 현재 고등학생에 한정되어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점차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조기 대응 및 예방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2) 대안교육시설 및 대안학교 운영 확대

- 현재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대안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인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학교 내 Wee 클래스(대안교실) 및 Wee 센터(대안교육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이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복교를 돕는 대안교육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안학교에 적용되는 특례를 인정하여 시·도별 공립 대안학교를 설치하고 정규학교와 대안학교가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학교부적응 학생 및 이미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복교절차를 거쳐 원적교에 소속을 두고 각종 대안교육 시설의 프로그램 및 지역 내 다양한 기관별로 운영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 간의 연계과정 이수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교육수요자의 욕구와 기호를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님. 학업중단 청소년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과 병행하여 공립형태의 장기위탁 교육기관 설립 확대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위탁교육기관 지정제 및 평생교육시설의 위탁 프로그램 인증제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 도입될 필요가 있음.

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 청소년 학업중단의 문제는 학업을 중단하기 이전에 원인을 진단하여 대처할 수 있는 예방 정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중요함. 그렇다면 사전조치나 예방정책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가 관건이 됨.
- 현행 우리나라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정책은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복교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되어 옴. 그러나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복교 후 재탈락율도 여전히 높은 현실임.
-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일단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위해서는 복교정책과 병행하여 이들의 상황에 맞게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함.
- 원만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1) 도립 기술학교에 학업중단 청소년 접근성 확대

- 경기도 기술학교의 직업훈련 교육과정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교육인원을 확대하고 상담교사를 상주하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지도를 지원함.

- 도립 기술학교는 도내 실업자 및 수급자를 기능인으로 양성하여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연간 천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그 중 학업중단 청소년은 30명 내외로 매우 낮은 비율임.
- 이는 모든 교육과정이 무료로 제공되어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면접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진입 후에도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생 간의 갈등과 마찰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임.
-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 인원을 확대하고 상담인력을 파견하여 생활지도와 적응력 향상 훈련을 제공하도록 하며, 3~6개월 혹은 1년간의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

2) 기업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 직업훈련교육을 수료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인턴십과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내 기업과 연계하고, 인턴십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발생하는 경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의 혜택을 부여함.
-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취업인턴제와는 별도로 경기도에서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자동차 정비, 컴퓨터, 관광가이드, 요리, 바리스타 등 청소년의 관심과 수요가 있는 직업현장에서 인턴십을 거쳐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과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함.
-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취업지원(뉴스타트·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활과 사회복귀의 활성화를 도모함.

3) 여성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신설

- 경기도 산하 직업교육 기관에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불건전한 노동현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
- 경기도 기술학교의 교육과정은 첨단기계학과, 전기에너지학과, 특수용접과, 자동차정비학과 등 여성의 관심과 욕구와는 거리가 있으며,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음.

- 여성청소년들의 흥미와 욕구가 높은 뷰티코디네이션, 패션, 공예디자인 등 최신 직종을 위한 교육과정을 경기도 기술학교 혹은 여성인력개발 관련 기관에 개설하거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다.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1) 빈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급식비, 교통비, 검정고시 비용 등을 지원함.
- 경기도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25.0%가 부모의 실직, 가정해체, 가정경제의 어려움 등 '가사'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므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함.

2) 청소년시설 운영의 다각화

- 도내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다각화하여 시간 연장,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생활권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이나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학생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업중단 청소년이 이용하는 데는 제약이 따름.
-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현행 20시에서 22시로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이용을 확대하고, 대안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지원함.

이슈브리프 제44호 (12-03)

**청소년 학업중단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발행인 박 명 순
발행일 2012년 7월 19일
발행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www.gfwri.k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송죽동)
Tel. 031)220-3900 Fax. 031)220-3919
인 쇄 경인인쇄사 (Tel.031-221-4123)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있습니다.

